

막바지 피서...신나는 해양레포츠 체험

전남 해수욕장 곳곳 이벤트 풍성

카누타기·음악회·씨름대회 등...올 4백만 돌파 기대

올 여름 막바지 휴가를 겨냥, 전남지역 해수욕장 곳곳에서 다양하고 신나는 해양레포츠 체험행사가 이어진다.

전남도에 따르면 진도 가계 해수욕장에서 오는 15일까지 카누타기 등 다양한 해양레포츠 무료체험 행사가 열린다.

신안 시목과 보성 울포 해수욕장에서도 매주 토요일 '천일염 짚어지고 백사장달리기'와 여름밤 콘서트 등이 열려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 여수 유림해수욕장에서는 8일부터 5일간 전통배 무료체험행사가 벌어지고 9일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에서는 여수장사씨름대회가 열려 다양한

볼거리도 제공한다.

고흥 덕흥에서는 8일 한여름 밤의 국악공연이, 신안 대광에서는 8·9일 모래 민어축제와 열리고 함평 돌머리에서는 13일과 15일 개매기, 9일과 17일에는 바지락 캐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기름 유출사고로 폐쇄됐던 신안 증도 우전해수욕장도 8일부터 재개장, 활기를 되찾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이날 우전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하며 수질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박 지사는 "이번 유류 유출 사고로 신안지역의 수질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지만 관계당국과 자원봉사자들이 방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수질이 원상 회복 됐다"며 "마음껏 해수욕을 즐겨도 된다"고 피

서객들을 안심시켰다.

전남도는 해수 온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해 우전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을 9월 7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다른 해수욕장들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거의 마무리 되는 올 여름 바캉스 특수를 놓치지 않기 위해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 등을 준비해 놓고 피서객들을 맞고 있다.

전남도는 신안 기름 유출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말에 도내 피서객 방문 400만명 돌파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남 지역은 지난 6월 2일 전국 최초로 해수욕장을 조기 개장한 이래 8월 3일 현재까지 62개 해수욕장에 260만명이 다녀가 지난해 같은 기간(233만명)에 비해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동도 음악분수대 새단장

새롭게 단장된 여수 오동도 음악분수대가 한 여름밤 무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오동도 음악분수대는 매일 저녁 8시까지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여수 야경을 밝히고 있다. (여수시 제공)

나주시 6·25 참전 유공자에 참전수당 월 2만원

나주시가 6·25 참전 유공자에게 월 2만원의 참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25전쟁에 군인으로 참전했다 전역했거나 소년지원병 등 국방부 장관이 참전 사실을 인정한 경우로 나주시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시는 또 이들이 사망하면 장제비 20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나주시역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가 654명으로 상반기분 8천여만원은 이달중 지급된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신활력사업사업 평가 함평군 대통령 표창

함평군이 농촌활력증진사업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한다.

함평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70여 개 전국 신활력사업 추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활력증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

군은 이번 평가에서 나비축제로 대표되는 친환경 관광자원을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삼아 '나비관광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나비브랜드인 '나르다(Nareda)' 등 홍보상품과 디자인 개발을 통해 연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120여명의 지역혁신 마을리더와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은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28일 전북 부안에서 열리는 농촌활력증진사업 워크숍에서 농수산식품부장관,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함평=박영진기자 pyj4079@

“여수항 관리, 지자체 이관 안된다”

여수항만청노조 “엑스포 성공 위해 국가 관리해야”

정부가 여수항의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키로 한데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토해양부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노조는 8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전국 항만 중 부산항과 광양항 등 6개 항만만 중점 관리하고 나머지 항만 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

수항은 관광·레저 항만으로 육상해 상조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여수항이 국가항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전남도와 여수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전남도와 여수시는 여수항이 국가항만으로 계속 존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여수시 ‘의전 행사’ 대폭 줄인다

내빈소개 생략·축사 단축 등 시민중심 의전 펼치기로

여수시가 각종 행사 때 내빈 소개와 축사 시간을 대폭 줄이는 등 시민 중심의 의전 간소화 방침을 마련했다.

여수시는 시민의 불편을 없애고 낭비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에 초청하는 외부 인사를 줄이고 내빈

소개와 축사 시간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축사의 경우 축하메시지나 영상물을 활용하는 등 의전행사를 20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신 시민들이 테이프 커팅과 시삽, 제막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광양항 발전 위해 광양만권 통합 필요”

최장현 컨공단 이사장 “불법시설 수일내 철거”

광양항 발전을 위해서는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광양만권 3개시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장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광양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항 주변에 기업들이 많이 입주해야 한다”면서 “현재 광양시에는 영화관이나 백화점이 없는 등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3개시 통합을 통해 도시 기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의 이 같은 입장은 3개시

통합에 부정적인 이성용 광양시장의 입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지역 내 반응이 주목된다.

최 이사장은 “광양항 컨테이너 화물처리 능력이 300만TEU 가량은 돼야 광양항의 활로가 트인다”며 “수년 내에 300만TEU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이사장은 “정부가 여수항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수항은 광양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오감 체험하며 천년의 신비 속으로

오늘 '강진청자문화제' 개막 세계도자기전 등 행사 다채

천년의 비색을 선보일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가 9일부터 17일까지 대구면 고려청자촌 일대에서 열린다.

7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강진청자문화제는 올해에는 '흙·불 그리고 인간'을 주제로 5개 부문 100개 단위 행사가 열리며, 소규모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대신 청자와 연관된 단위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또 직접 만들어보고, 감상하고, 즐기고, 맛볼 수 있는 이른바 오감(五感) 체험 프로그램도 크게 늘었다.

'태안앞바다 강진청자보물선 인양 유물 특별전'과 세계도자기 특별전, 8개국 국제도예작가 워크숍 등 축제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국제행사도 대폭 확대됐다.

여기에 '어린이 청자박물관 운영'과 '주한 외국인 대학생 가요제' 등 청자문화 세계화와 대문화,



제 13회 강진청자문화제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대구면 고려청자촌 일대에서 축제 진행요원들이 개막식에 투입될 행사 차량을 점검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고급화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청자빚기, 물레체험, 나뭇배 타기 등 각종 체험 행사도 마련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강진청자의 신비하고 고즈넉한 소리를 체험할 수 있는 청자종 제작과 국 제행사도 대폭 확대됐다.

특히 강진민(灣)의 동서 해안선

70여km를 유람선을 타면서 즐기는 작은 음악회와 선상 생선회 코너 등은 관광객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기간에는 만남(9일), 외국인(10일), 희망(11일) 여성(12일), 실버(13일), 청소년(14일), 화합(15일), 가족(16일), 약속(17일) 등의 주제를 정해 관련 행사와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목포 여객선터미널 시설 대폭 개선

하의·장산 주민 편의 위해 물양장 추가 설치

서남해 여객선 관문인 목포여객선터미널의 시설이 이용객 위주로 개선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서남해 뱃길을 이용하는 여객들과 섬 주민들이 여객선을 타고 내릴 때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여객터미널 시설 및 환경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문을 연 이 여객터미널은 노약자가 배를 타기 위해 걸어야 하는 거리가 너무 멀고 계단이 너무 가파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목포항만청은 하의·장산 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터미널에서 바로 승선할 수 있도록 물 연막가

지 터미널 바로 옆에 경사식 물양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또 터미널 정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택시 승강장을 새로 설치하고 에스컬레이터 시설도 이용객이 있을 때만 가동되는 자동운전시스템으로 개선했다.

이밖에 터미널 4층 900여㎡에 만든 옥상 정원을 조만간 개방해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목포=이성진기자 sslee@

백로들 때문에... 목포 교도소 ‘힘겨운 여름나기’

교도소내 2천여마리 서식 폭염속 악취, AI 공포까지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목포교도소가 백로 때문에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

지난 89년 목포에서 이전한 목포교도소가 백로, 왜가리와외의 동계(?)를 시작된 것은 1997년부터. 서해안고속도로 공사도 서식지가 없어진 백로때가 교도소 안 3천300여㎡ 소나무 숲으로 옮겨왔다. <사진>

우아하고 고귀한 자태로 귀한 손님 대접을 받았던 백로와 왜가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취와 분노로 '귀찮은 손님'으로 전락했다.

1천~2천 마리의 백로 서식지는 1천100여 명의 재소자 수용시설 및 직원 관사와 불과 50~100여m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여름철에는 백로 분노



냄새로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 교도소 측의 하소연이다.

특히 관사(31가구)에서 살고 있는 직원들은 더운 여름철에도 심한 악취로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교도소 관계자는 “봄철에 시작된 냄새는 여름철에 최고조에 이르러 비가 올 무렵에는 코피를 쏟을 정도로 냄새가 심하다”며 “백로 때문에 소나

무 숲이 다 죽어가고 주변 환경도 엉망이 됐지만 말 못하는 새에게 떠나라고 할 수도 없어 난감하다”고 골상을 지었다.

이어 “지난 4월에는 AI에 전염될까 봐 보건소 협조를 받아 방역을 하기도 했다”며 “냄새와 AI 공포까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무안=대성기자 dss@

여수 수산업 '활황'을 상반기 16% ↑

올 상반기 여수지역 어업생산량이 지난해 동기보다 16% 가량 증가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여수수산사무소에 따르면 여수지역의 올 상반기 어업생산량은 3만4천 800으로 작년 동기 2만9천900보다 16.4% 증가했다.

이는 소형어선 감척 사업으로 치어 남획이 줄어들고 수온이 예년보다 높아지면서 멸치 등을 잡는 안강망어업의 여획고가 급증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수=박영진기자 ykpark@

장흥 해양낙시공원 내달 문 연다

35억 투입 전국 최초 조성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기대

전국 최초의 해양낙시공원이 당초 예정보다 한달 늦어진 오는 9월 장흥에 들어선다.

장흥군에 따르면 해양레저관광 시대를 대비해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양낙시공원 조성공사가 이달 말로 마무리돼 9월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한다.

35억원을 투입해 회진면 대리에 조성중인 해양낙시공원은 지난해 7월 실시계획을 완료하고 행정 절차

를 거쳐 같은 해 10월 17일 착공했다.

해양낙시공원은 바다 낚시터에 진입하기 위한 진입도로, 해안테크, 정자, 낚시교, 해상 낚시터, 안내소가 조성되며 인공어초도 투하된다.

청정해역 바다 낚시터로 전국에 잘 알려진 장흥에 해양낙시공원이 조성될 경우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낚시 체험 공간을 제공하게 돼 해양 레저 산업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회진 앞바다는 10여년 전부터 매년 전국 규모의 바다 낚시대회가 열려왔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